목소리로 세상을 이어주는 사람들

고양시청 공무원 동아리 '낭독봉사동호회'

고양소식 '소리방'을 들어본 적 있다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일지 궁금할 것이다. 고양시청 공무원 동아리 '낭독봉사동호회' 회원들이 바로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이들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목소리 재능기부를 하며 지역사회 시민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따스한 목소리로 사랑을 전하는 '낭독봉사동호회' 회원들을 만나 보았다.

글. 배미진(편집부) 사진. 이현재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진행되는 녹음 작업

고양시청 공무원 모여 결성

지난 2018년 3월 결성된 '낭독봉사동호회'는 고양시청 행정 6급 이상 여성으로 이뤄진 '장미회'에서 비롯되었다. 동료들과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던 윤미옥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장의 제안으로 낭독봉사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전에 낭독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단순히 교육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어오고 싶었죠. 동호회 회원 모집을 시작한 후 일주일 내에 신청을 마감할 정도로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현재 1~3기 통틀어 20여 명이 소속돼 있어요."

낭독봉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 원들은 6개월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낭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때 발성과 발음, 띄어 읽기, 억양 등을 교육받는다. 기수별로 읽을 도서 를 선정한 후 녹음을 하는데,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단체모임이 어 려워지면서 개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한 고양소식 '소리방' 낭독은 윤미옥 팀장과 염정림 송포동 행정복지센터 부팀장, 박갑순 일자리정책과 주무관, 노은주 환경정책과 주무관 등 5명이 담 당하고 있다.

"홍보부서에 소식지 낭독을 하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시정소식지를 공무원이 녹음해서 시민들에게 들려주면 의미가 클 것 같았죠. 다행히 긍정적인 반응을 주셔서 저희도 신나게 녹음하고 있답니다."

목소리로 전하는 진심

청각에 의존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낭독봉사동호회는 듣기 편안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소리와 사람들' 운영자이자 성우인 장영재 대표에게 꾸준히 교육받는다. 하지만 전문 성우가 아니기에 늘 녹음실 마이크 앞에 서면 긴장된다는 그들. 염정 림 부팀장 또한 '연습만이 살길'이라며 낭독해야 할 원고를 늘 지니고 다닌다. "말하듯 편안하게 녹음해야 하는데 혀 짧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 목소리를 듣는 청취자들이 정보도 얻고, 힐링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소식지뿐만 아니라 마음에 울림을 주는 도서 <사서삼경>, <마음의 결>, <나를 위한 하루 선물> 등을 녹음한 후 매월 경기도장 애인복지관, 고양시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에 제공한다. 박갑순 주무관과 노은주 주무관도 목소리로 행복을 전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한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듣기 좋고 편하게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재능기부로 따뜻한 공동체 꿈꿔

회원들은 목소리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간다. 고양시청 음 악방송, 시정 홍보영상 내레이션, 축제 안내 방송 녹음 등 활동영역은 무궁무진하다. 이들은 주변에서 요청이 올 때마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동아리 활동으로 만난 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업무 협의를 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조직 내 소규모 동아리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윤미옥 팀장은 낭독봉사을 하면 회원 개인의 발전에도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다며 미소 지었다.

"봉사나 재능기부의 의미보다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과 성취감이 훨씬 더 큽니다. 자원봉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눈다면 더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u>응</u>



고양소식 소리방 바로가기



고양소식 소리방을 듣는 3가지 방법

- ① 고양시청 홈페이지→고양매거진→고양소식지→고양소식 소리방
- ② 유튜브 채널 '고양소식 소리방' 구독
- ③ <고양in 행복人> 3쪽 목차 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QR코드 스캔

16 17